

코로나 극복·경제 활력 ... 새해엔 희망을 이야기하자

사회 안전망·공공의 역할 강화
백신에 의한 코로나 극복 넘어
지금의 위기 미래 혁신 기회로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사라진 시간이었다.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갈려 치열한 다툼을 이어갔고, 수도권은 블랙홀처럼 물자와 인재를 흡수하면서 가뜰이나 어려운 지방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광주와 전남을 등 돌리게 만든 지역간 갈등 역시 민선 정치 도입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 역시 취지와 목표는 잊혀진 채 찬반으로 나뉘며 의미가 퇴색했다. 균형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법의 저울이 공정성·형평성보다는 진영 논리에 좌우된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로소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부담은 높아져만 갔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대책은 탁상공론에 그쳤다. 그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민생경제는 낭떠러지에 섰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거리두기', '비대면' 등의 조치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다. 소득 급감, 기회 박탈, 회복 가능성 상실 등으로 피눈물 나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들을 보듬는 정책과 지원은 부족하고 단발에 그쳤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년이 될 새해에는 공공(公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며 그것이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버팀목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누구나 그 노력에 합당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차별과 소외 없이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꿈을 꾸고 있는 이들이 하나씩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백신, 치료제 등에 의한 단순한 코로나19의 극복이 아니라 지금까지 겪어본 바 없는 이 위기를 비할라, 불공정, 불균형 등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공공의 부를 키우고, 모두를 위해 무분별한 사익 추구를 억제해야 한다. 부, 권력, 학벌, 자리의 독과점을 분쇄하고, 누구나 공정을 공감할 수 있는 법·제도 혁신안도 뒤따라야 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새해가 시작했다.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출입로에 '2021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가 환히 불을 밝히고 있다. 신축된 새해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원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것이다. 아파트와 자동차로 뒤덮인 도시를 녹색과 사람을 중시하는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하며, 나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의 막바지까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버티나갈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그 재원은 부유층의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남의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와 같이 금전적인 이유로 학업 지속, 재능 개발 등을 포기하는 인재들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듬어야 하며, 과거 국가불균형 성장 및 발전으로 인해 그 부작용 및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금빛 송아지와 함께하는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우리 모두가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진보와 보수, 부유층과 빈곤층,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등 그 존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대편을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시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법무장관 판사출신 박범계 의원 내정

환경장관 한정에·보훈처장 황기철
靑 노영민·김상조 실장 사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에 의원을,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발탁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친 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19~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법제사법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간사 등을 맡았다. 특히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시험(33회)·사법연수원(23기) 동기다.

정 수석은 "박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와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인 박상기·조국 전 장관, 판사 출신인 추미에 장관에 이어 모두 비(非)검찰 출신이 맡게 됐다.

한정에 환경장관 후보자는 한국노총 출신 3선 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기후변화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정 수석은 "한 후보자는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갖췄다"며 "2050 장기저탄소발전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정책 과제에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기철 보훈처장 내정자에 대해선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고 특히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중호 민정수석이 3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사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고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 ▲시
이서영 '있다 잊어버리자 잊혀지거나 등등'
- ▲소설
김정숙 '등고선'
- ▲동화
김효진 '8구역 배추자 여사'

2021 새해 특집 32면 발행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광주일보 임직원 일동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비즈니스 플랫폼

전력산업을 밝히는 별 전력거래소

대한민국의 맑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전력거래소가 안정적 전력수급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시대를 열어갑니다

전천후 전력 비즈니스 플랫폼, 전력거래소가 만듭니다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장단기 전력계통 운영
- 가격결정, 계량·정산·결제
통한 전력시장 운영
- 24시간 전력계통 제어를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
- 에너지전환시대를 여는 다양한
전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전기를 아끼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자참여시장 운영

smart
KPX 전력거래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빛가람동
TEL 1 061,330,8100 | FAX 1 061,330,8199